

# 봄바람 타고 ~ 연애 예능에 빠지다

**‘하트시그널’ ‘로맨스 패키지’ ‘선다방’  
대리만족·리얼리티로 화제성 각양각색  
일반인 출연자들 스펙·외모에 눈길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트시그널’ ‘선다방’ ‘로맨스 패키지’

대리만족할 판타지도 줘야 하고 감정 이입할 리얼리티도 살려야 하니 예능 중에서도 고난도다.  
과거 큰 인기를 얻었던 SBS TV ‘짝’부터 요즘 젊은 층이 열광하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까지 연애 리얼리티 예능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타진’ 경우는 적었다. 그래도 ‘한 방’을 위해 제작은 계속된다. 최근에는 ‘하트시그널2’ 뿐만 아니라 SBS TV ‘로맨스 패키지’, tvN ‘선다방’ 등 다양한 로맨스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다. 하지만 화제성은 전양지저다.  
‘하트시그널2’는 시청률은 1%(닐슨코리아)대여 머무르지만, 온라인 화제성은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이 부럽지 않다. 열광의 농도로 따지면 꽤 성공했던 시즌1보다도 짙어 하루 결방이라도 한 날엔 향의 댓글이 넘친다.  
그저 일반인들의 연애를 그리지만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시그널 하우스’ 입주자들을 보면 면면이 화려해 시선을 끈다. 속칭 뛰어난 ‘스펙’은 물론 매력적인 외모와 매너까지 갖추니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흔한 외모의 한의사 김도균, 뛰어난 언변을 갖춘 스타트업 창업자 정재호, 스포츠가 애호가로 행적에 특이한 이규빈, 다재다능함에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까지 갖춘 김현우 등 라인업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판타지를 준다. 여성 출연자들 역시 커리어우먼 오영주, 사진작가 겸 모델 김장미, 동안 미모의 임현주, 청순한 배우 지망생 송다은까지 드라마 속 헤로인 넘친다.

선남선녀들이 한 공간에서 ‘쌈’을 타고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느껴지는 설렘과 긴장은 판타지 같으면서도 리얼함을 준다. 실제로 ‘하트시그널2’의 시청평중 다수는 “나도 저렇게 쌈 타고 싶다”이다. 출연진이 보면 주변에 있을 만한 인물인데 외모는 연예인 못지않으니 드라마보다 대리만족하기 좋다는 ‘상세 후기’도 있다.  
리얼리티를 살리는 것은 세심한 연출의 힘과 더불어 대부분 출연진이 프로그램 본연의 취지에 집중하는 덕이 가장 크다. 정준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만큼 멋지지만, 연애에 진출하는 뜻이 없어 보인다. 그저

작을 찾아 썸을 타는 임무에 충실할 뿐이다. 그래서 시청자는 안심하고 ‘일반인’의 리얼한 연애를 지켜볼 수 있다.

반면, 파일럿 방송 때 5%대 시청률을 기록해 정규 편성을 앞둔 SBS TV ‘로맨스 패키지’와 tvN이 방송 중인 ‘선다방’은 판타지와 리얼리티 중 하나를 놓친 경우다.

‘로맨스 패키지’는 2일 첫 정규 방송에서 어떤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지 미지수이지만 파일럿 방송으로 판단할 때는 리얼리티가 부족했다.

호텔, 바캉스, 연애를 접목한 점은 신선했고 출연진 면면도 ‘하트시그널’ 못지않게 화려했지만, 곳곳에 ‘설정’으로 보이는 연출이 묻어나 몰입을 저해했다. 출연진의 심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서로를 노출하고 스킵하는 포맷에 바로 감정이 이입될 시청자도 별로 없었다.

실제 커플이 된 일부 출연자가 그래도 방송 직후 얻은 관심을 이어가려는 듯 SNS에서 활발하게 ‘연애 활동’을 하다 화제가 식을 시점에 그만둔 사례 역시 시청자들에게 역시 ‘연애 활동’이었구나 싶은 인식만 심어줬다.  
‘선다방’은 반대로 판타지 요소가 부족한 경우다.

‘순례’ ‘세월호 특별기획-3년 세월의 시간’ 등

## 국산 다큐 휴스턴영화제 잇단 수상

국내 방송국에서 제작·방송한 프로그램들이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KBS는 다큐멘터리 ‘순례-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사진), ‘세월호 특별기획-3년 세월의 시간’, 교양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대한민국 수면보고서’, ‘감성과 과학 프로젝트-탄생’, ‘한국사기-인간의 조건’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드라마 스페셜 ‘만나게 해, 주오-경성훈 인정보호사’, ‘UHD 헤리티지 투모로우’,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집-자연의 타임캡슐, 용공에 살다, 다려도’, 주말극 ‘아빠가 사랑에 빠졌다, 다려도’, 주말극 ‘아빠가 사랑에 빠졌다, 다려도’, 주말극 ‘아빠가 사랑에 빠졌다, 다려도’가 다량 부문 대상을 받았다. 드라마 ‘김과장’과 ‘시시각각 장-평창 동계올림픽 특집’이 금상을 차지했다.

MBC에서는 ‘휴먼다큐 사랑-두 엄마 이야기’가 다량 부문 대상을 받았다. ‘마이러블 레비전’은 예능 부문 금상을,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은 드라마 부문 은상을 가져갔다.

또 MBC충북이 제작한 ‘포레스토리’가 다량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특별상 부



문에도 최종 후보로 선정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BS에서는 드라마 ‘남만덕 김사부’가 휴스턴국제영화제 드라마 부문에서, ‘SBS 스페셜-사건번호 2016 현아1’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또 ‘SBS스페셜-아빠의 전쟁’이 다량 부문 대상을, ‘제19대 대통령 선거방송-2017 국민의 선택’이 라이브 이벤트 부문 대상을 ‘꾸러기 탐구생활’이 가족 어린이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JTBC 웹드라마 ‘알 수도 있는 사람’은 TV 스페셜 드라마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 김희애 진행 맡아



어린이날 특별 방송

MBC TV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11시 40분 특별기획 ‘2018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1990년 시작해 올해로 28회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희소병,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스타들이 봉사 등에 참여하는 포맷이다.  
올해도 진행은 배우 김희애(사진)가 맡

는다.  
25년째 이 프로그램 MC를 해온 김희애는 올해는 방송인 오상진과 호흡을 맞춘다. 이번 행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과 용인 에버랜드에서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기부 메신저’로는 그룹 엑소, 트와이스, 워너원, 비스 등이 나서며 가수 윤종신, 모델 장윤주, 배우 박주미, 가수 겸 방송인 하하가 프리젠티어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헬스(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연생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TV스쿨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35 2018 메이저리그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재)		00 애니갤러리 30 교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인형의 집(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제30회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뽀뽀모두아 놀자 스페셜 55 에어로비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보험상 위키 2 30 TV유지형	25 꾸러기 식시교실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누가 잘하나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12 KBS 뉴스 5(광주) 13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이킵 2 30 가정의 달 특선만화 히어로스쿨 제트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불타는 청춘(재)
7	00 KBS 뉴스7 30 KBS 뉴스 7(광주)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스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속보보는TV 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슈츠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이웃집 할스(재)	10 해피투게더	10 이불 밖은 위험해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아리 5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15 두다다콩(재)	14:30 라인보우 루비	<부모가 살던 시대? 내 알 바 아니 2부>
05:30 통일의 길	09:30 물랑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20:40 세계테마기행
<영화가 좋다>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15 파프리카	<어른들의 통화 배트맨 4부 지킬때 걷는 길>
06:00 한국기행(재)	10:30 한국기행(재)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꽃보다 할매 4부 아메리카노 한 잔 무뎠래?>
<한국보다 타히티 4부 축복의 섬 로레아>	<고구마 단호박 김피자와 말기메이>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21:50 다큐 시선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얼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7:45 뽀뽀뽀 뽀로로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08:00 당동당 유치원 1~2	13:00 지식채널e	17:45 뽀뽀뽀 뽀로로	25:05 지식채널e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10 장수의 비밀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4	25:10 과학 다크비전(Beyond)
08:45 말랄라 뿌우	<함께서 더 행복한 우리>	19:00 사이언스타 Q	
09:00 뚝딱맨	13:40 다큐 시선	19:30 EBS 뉴스	
		19:50 배워서 남주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일(음 3월 18일 乙未)
<b>子</b> 36년생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된다. 48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60년생 조건이 주어진 때 확보해야 한다. 72년생 표리가 일치하니 침묵이 상서로움을 부를 것이다. 84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38, 45	<b>午</b> 42년생 아름다운 운세이다. 54년생 순간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66년생 기본적인 것의 파악에 충실해야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78년생 만회하기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방비책을 든든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74, 07
<b>丑</b> 37년생 효과는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49년생 과감히 펼쳐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61년생 잘 살펴보아야 하는 국면이다. 73년생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다. 85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3, 04	<b>未</b> 43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55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형국이다. 67년생 적절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문제 생기기 않는다. 79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 않은 날이다. 91년생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7, 03
<b>寅</b> 38년생 순발력이 요구된다. 50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겠다. 62년생 원인 분석을 투명하게 해야 대책을 바르게 세운다. 74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86년생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0, 23	<b>申</b> 44년생 기대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보인다. 56년생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 68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려. 80년생 활력소가 되어 주기에 충분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 92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1, 74
<b>卯</b> 39년생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51년생 순서를 무시한다면 혼란에 빠진다. 63년생 급변전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라. 75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87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행운의 숫자 : 96, 67	<b>酉</b> 45년생 성사 가능성이 높다. 57년생 팔 십은대 팔 나고 콩심은 데 콩 난다. 69년생 순조로운 과정에서 소극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81년생 기점점을 넘어서면 부족함만 못하다. 93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46, 54
<b>辰</b> 40년생 금석지간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52년생 아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64년생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76년생 쇠불도 단 근에 빠졌다. 88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여건 조성부터 하고 보라. 행운의 숫자 : 58, 72	<b>戌</b> 34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다. 46년생 주변인의 핏대 귀 기울이자. 58년생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자. 70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수가 있어야 하겠다. 82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16
<b>巳</b> 41년생 중용을 유지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53년생 재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65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 아니니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77년생 오래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89년생 예기치 못한 이로움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95, 30	<b>亥</b> 35년생 지금 바로 잡아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4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59년생 구관이 명관이고, 노골이 새 것보다 낫겠다. 71년생 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83년생 생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94, 91